

하이드로젠 카운슬 총회 계기로 국제사회 민관 수소협력 강화

- 수소 관련 세계적인 기업 등과 함께 민관 수소협력 강화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3일 오후 콘래드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정책을 공유하고 전 세계 민관 수소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하이드로젠 카운슬(Hydrogen Council) 총회’에 이호현 제2차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하이드로젠 카운슬(Hydrogen Council) 총회’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수단인 수소에 대한 비전을 산업계가 함께 공유하고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출범한 수소 관련 세계적인 기업의 최고경영자 협의체다.

전 세계 140여 개 회원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진 등이 참석하는 총회가 연례 개최 중으로,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개최국의 수소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전 세계 수소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한국 시장 부분(세션)이 별도로 마련된다.

이호현 제2차관의 기조연설에 이어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 △추형욱 에스케이 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이두순 두산퓨얼셀 대표이사 등 주요 기업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주요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수소 생산-유통-활용 산업 전주기에 걸친 사업전략과 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민간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에 이어 산업전반의 녹색 전환을 위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수소는 수소환원제철 등 산업 혁신과 수송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하며, “전 세계 수소 생태계의 확산을 위해 청정수소 공급망, 기술·표준, 금융 등 수소 전 분야에서 각국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라고 밝힐 예정이다.

붙임 총회 한국시장 세션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경제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범수 (044-203-3950)
		담당자	사무관	김일한 (044-203-3953)



□ **Hydrogen Council 총회 한국시장 세션 개요**

- (일시/장소) 12.3.(수) 15:20~16:46 / 여의도 콘래드 호텔(파크 볼룸, 5F)
- (참석자) 기후부 제2차관, Hydrogen Council* CEO 등 약 200여명
* 140여개 글로벌 수소관련 기업 CEO로 구성된 민간 협의체로서, 현대차 장재훈 부회장이 공동의장
- (주제) 글로벌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선도적 역할
- (진행방식) 기후부 기조연설 및 기업 패널토론, 발표(제주도지사) 등 順

※ 행사는 영어로 진행

일정(안)		내용	비고
15:20 ~ 15:22	2'	세션 소개	
15:22 ~ 15:30	8'	기조연설	기후부 이호현 제2차관
15:30 ~ 16:36	66'	기업 패널토론	
		수소활용	현대차, 두산퓨얼셀, 일진하이솔루스, 코오롱
		수소생산/저장	현대차, 롯데케미칼, SK 이노베이션
16:36 ~ 16:44	8'	'제주시 수소전략' 소개	오영훈 제주도지사
16:44 ~ 16:46	2'	세션 종료	

□ **[참고] Hydrogen Council 총회 개요**

- (일시/장소) 12.2~3일* / 서울(여의도 콘래드 호텔)
* 2일 네트워킹 만찬, 3일 총회 종일 진행(9:00~17:00)
- (참석자*) Hydrogen Council CEO 및 고위임원진 등
* 현대차, 에어리퀴드(프), 린데(독), 톱소덴, 가와사키중공업(일), 시노펙(중) 등 100여개 기업 참석 예정
- (주요내용) 글로벌 수소산업 동향, 위원회 성과 및 향후 계획 등 논의
※ 위원장(공동) : 현대차 장재훈 부회장, Sanjiv Lamba(린데, CEO)